■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40.
http://doi.org/10.17948/kcs.2021..92.11

【특집: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

『御製增訂淸文鑑』 만주어의 형태 분석 1*
—동사형을 중심으로—

당천항(唐千航)**·김양진(金亮鎭)***

목 차

1. 들어가며
2. 만주어 형태 분석 기준—동사를 중심으로
3. 만주어 동사 형태의 분석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김양진・이현희(2009)에서 제안된 형태(소) 분석 기준에 의해 『御製增訂淸文鑑』 속 만주어 전체 표제어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동사 형태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한 글이다. 『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단어 형식인 표제어 12,484 단어 중에서 동사 범주의 표제어는 총 5,560개이며 동사의 굴절어미 '-mbi', '-ha/-he/-ho/-ka/-ke/-ko'류 및 '-ra/-re/-ro'류 등을 제외하고 중복형을 삭제하여 얻은 동사어간 4,043개 목록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합성 및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8089).
** 제1저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파생 등의 분석을 통해 만주어 동사 단일어간 목록 및 파생접미사 목록과 구성소적 접미사, 불완전어근 목록 등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각 파생접미사에 따른 단어 생산성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형태(소) 분석의 과정에서 만주어 동사 어간 중 형용사로 파생될 때 n형 말음을 갖게 되는 동사어간 재구형 211개도 확인되었다. 이들 n형 어간 가운데 109개는 파생어인데 대부분은 파생접미사 '-rAn-'에 의해 파생된다.

주제어: 『御製增訂淸文鑑』, 만주어, 만주어 형태(소) 분석 기준, 만주어 동사 형태소, n형 어간.

1. 들어가며

본고는 만주어의 형태소 목록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주어의 조어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만주어 형태소 연구는 박창해・유창돈(1960)[1]에서 〈한청문감〉의 어휘 목록을 제공한 바 있으며, 김동소(1972/1974)[2]에서 〈청어노걸대〉의 형태음소론을 위한 기초 목록을 제공하고 박은용(1969)[3]에서 만주어 문법 형태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은 이래 오랫동안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2010년대 이래 지난 10년 사이에 만주어의 어휘 형태소 및 문법 형태소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주어의 형태소 분석과 관련한 해외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는 Hauer(1952/2007)[4]의 형태소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전에는 만주어의 일부 단어에 대해 꼼꼼하게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서 이후 이훈(2017)[5]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되 다음과

1) 박창해・유창돈, 『韓漢 淸文鑑 索引』, 延世大 東方學硏究所, 1960.
2) 金東昭, 「淸語老乞大의 滿洲文語形態音素記述 (一)」, 『語文學』 27, 어문학회, 1972, 42-57면; 「淸語老乞大의 滿洲文語形態音素記述 (二)」, 『語文學』 30, 어문학회, 1974, 29-52면.
3) 박은용, 『滿洲語文語硏究 1/2』, 螢雪出版社, 1969.
4) Hauer, E.,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Otto Harrassowitz, 1952-1955;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uflage, herausgegeben von Oliver Corff, Wiesbaden: Harrassowitz, 2007.
5) 이훈,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같은 간단한 형태 정보 제시 원칙을 일러두기에 포함하였다.

(1) 형태 정보
표제어가 둘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제시하였다. 각 형태 간의 결합은 '+'로 표시하였다.

jilari 형 〖jilan+ri〗 자애로운.
kituhan 명 [예술] 〖琴+yatuhan〗 거문고, 금(琴).

이훈(2017)[6]에서 제시된 형태 정보에서는, 'jilari'에 대해서는 'jilan[자애/자비]'이라는 명사에 연격형 후치사 'ri'가 붙어서 관형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 'kituhan'에 대해서는 '琴[kin]+yatuhan[아쟁]'의 혼종어(blended word)로 보는 방식의 분석 정보를 보였는데 이들에 대한 조어론적 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김양진・이현희(2009)[7]에서 제시된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준과 원칙을 『어제증정청문감』(1779)의 만주어 표제어 전체에 적용하여 18세기의 만주어 형태소 목록을 추출하되, 이 당시의 조어론적 배경의 기초 자료 확보의 일환으로, 우선 문장의 핵심부를 이루는 서술어, 즉 동사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만주어 동사의 '단일어간' 및 '파생접미사'와 '구성소적 접미사', '불완전어근'의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만주어 형태 분석 기준—동사를 중심으로

김양진・이현희(2009)[8]에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을 출간하기에 앞서 총 38만 단어 규모의 사전 속에서 17만 단어에 해당하는 복합어의 형태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 범주를 정하고 이

6) 같은 책.
7) 김양진・이현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55-117면.
8) 같은 글.

에 맞게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최초의 만주어-만주어 사전으로서 18세기 만주어 표제어의 최대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어제증정청문감』(1779)의 모든 표제어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동사 형태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소) 실현 양상을 통계상으로 정리하여 보이고자 한다.[9)]

만주어에는 접두사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형태 분석 표지는 김양진・이현희(2009)[10)]의 사례에서 접두사 표지가 배제되었고 특이사항에서 '선어말어미' 관련 내용이 삭제된 대신, 첨사와 접어성 어휘 'o-, se-, bi' 등이 완전어근/자립어에 포함하였다. 접두사와 선어말어미 관련 사항은 만주어와 한국어의 형태소가 지니는 차이이지만 첨사와 접어성 어휘의 처리는 만주어와 한국어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만주어와 한국어는 모두 교착어라는 공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일한 기준에서의 형태(소) 분석을 할 때 해당 결과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어의 완전 어근/자립어에는 명사류(+niyalma[사람], +baita[일]), 형용사류(+amba[큰/큼], +komso[작은/작음]), 동사어간류(+gene-[가다], +jafa-[잡다]), 대명사류(+si[너], +suwe[너희들]), 수사류(+emu[하나/한], +juwan[열]), 감탄사(+ai, +ei), 조사(+be[를], +ci[에서]), 첨사류(+kai[니까], +dere[그래]), 접어류(+se-[하-], +o-[되-], +bi[이-])

불완전 어근에는 명사성 불완전어근(±mede, ±bushe)[11)], 동사성 불완전어근(±be_, ±go_)[12)], 형용사성 불완전어근(±fula, ±ge), 부사성 불완전어

9) 이 형태분석의 기준은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졌지만 교착성을 지닌 여타의 언어 분석에도 유효한 분석 기준으로 보고 이를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성이 높은 만주어의 형태분석에 원용하였다. 한국어 형태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을 더 참고할 것. 김양진,「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국어학』81, 국어학회, 2017, 227-261면.

10) 김양진・이현희, 앞의 글.

11) 불완전어근 '±mede'는 'mede-ge(편지)', 'mede-si(편지를 보내는 사람)'를 통해, 불완전어근 '±bushe'는 'bushe-ne-mbi(물집이 나다)'를 통해 분석된다. 만주어에서는 동사 분석에서 발견되는 불완전어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만 명사 분석에서 발견되는 불완전 어근으로 확인되는 예는 많지 않다.

12) 만주어의 동사성 불완전어근 '±be_'는 'benembi(보내다)', 'benjimbi(보내오다)'를 통해,

근(±efu, +mei) 등을 들 수 있고 한자어에서 기원한 어근 '±šang[賞], ±giyang[講]'[13] 등은 명사성 불완전어근에 포함된다.

만주어에서는 접두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접미사는 명사파생 접미사('-si[직업 파생접미사]: oktosi, baitasi', '-hA(A=a, e, o)[사물 파생접미사]: yasha, aciha'), 동사 파생접미사('-lA_(A=a, e, o)[행위성 동사 파생접미사]: amtalambi, baitalambi', '-dA_(A=a, e, o)[동작성 동사 파생접미사]: argadambi, faksidambi'), 형용사 파생접미사('-hUn(U=u, ū): wesihun, yadahūn', '-nggA(A=a, e): eldengge, hacingga'), 부사 파생접미사('-si: julesi, amasi', '-li: dabali, fuhali', 기타 어근형성 접미사('-tu(어기를 이루는 파생 접사): getuken, hūsutulembi') 등이 확인된다.

만주어는 선어말어미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말어미(혹은 문말어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만주어의 어말어미는 서법형 어미와 부정형 어미, 연결형 어미, 접속형 어미의 체계로 나누어진다. 서법형 어미는 다시 시상 평서법 어미('_mbi[비과거]: taci_mbi(가르친다), yabu_mbi(간다)', '_hA(A=a, e, o)[과거/완료]: taci_ha(가르친/가르쳤다), yabu_ha(간/갔다)', '_rA(A=a, e, o)[미래/미완]: taci_re(가르칠/가르칠 거다), yabu_re(갈/갈 거다)' 등), 청유법 어미('_ki[청유]: taci_ki(가르치자), yabu_ki(가자)', '_cina[청유]: taci_cina(가르치려무나, yabu_cina(가려무나)' 등)로 하위 구분되며,[14] 만주어의 부정형 어미는 시상 서법형 어미에 부정소 akū가 융합되어 이루어진다.(_rakū[미완료 부정]: taci_rakū(가르치지

'±go_'는 'gonggimbi'를 통해 분석된다. 'be_+ne_mbi(보내다)', 'be_+nji_mbi(보내오다)'류의 형태 분석에 대해서는 김양진, 「만주어 조어법 연구—『御製清文鑑』의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의 분석을 참조할 수 있다.

13) 만주어의 한자어 계열 불완전어근 '±giyang[講]'은 'giyang-na_mbi' 등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na(lA)'는 동사를 파생하기에 잘 활용되는 접미사이다.

14) 만주어의 어말어미 체계는 한국어와 달리 명령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가 없다. 만주어의 명령형은 (일부 동사에 -o, -fu, -nu, -so, -su와 같은 어미가 결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타의 알타이 제어들과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으로만 이루어지며 만주어의 의문문은 의문첨사 o, ni, (akū)n 등(박은용, 『滿洲語文語研究 1/2』, 大邱 : 螢雪出版社, 1969)에서 C류 접미사로 분류된 것들이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주어의 서법은 시상이 결합된 평서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로만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않는다), yabu_rakū(가지 않는다)' _hakū[완료 부정]: taci_hakū(가르치지 않았다), yabu_hakū(가지 않았다) 등). 연결형 어미에는 '_fi'[_고], '_ci[_어서]' 등이 있고, 접속형 어미의 예로는 '_me[_면]', '_hai[_ㄴ채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15]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만주어의 형태 분석 표지와 그 예

	해당 범주	만주어 예시	특이사항
+	완전 어근/자립어	+niyalma, +baita, +amba, +komso, +si, +suwe, +emu, +juwan, +gene-, +jafa-, +ai, +ei, +be, +ci, +se-, +o-, +bi, +kai, +dere, (…)	조사, 첨사 포함
±	불완전 어근/비자립어	±mede, ±bushe, ±be, ±go, ±fula, ±ge, ±efu, +mei, ±giyang[講], +hiyoošu[孝順], (…)	고유어, 한자어 불완전 어근 포함
-	접미사	-si, -hA, -lA_, -dA_, -hUn, -nggA, -li, -tu, (…)	
_[16]	어미	_mbi, _hA, _rA, _hAkū, _rAkū, _ki, _cina, _fi, _ci, _me, _hai, (…)	

3. 만주어 동사의 형태 분석

1) 조어 방식에 대한 통계 그리고 보충적 분석

이러한 형태 분석 표지를 중심으로 『어제증정청문감』(1779) 전체 표제어에 대해 형태 분석을 진행한 뒤, 우선 모든 단어 중에서 동사를 따로 excel 파일을 만들었다. 동사 표제어는 총 5,560개로 정리되었다.

15) 본고는 만주어의 동사 형태소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것이므로 만주어 어미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6) 접미사와 어미의 형식적 차이는 '-(가운데 하이픈)'과 '_(아래 하이픈)'에 의해 구별된다. -(가운데 하이픈)이 파생성을 나타낸다면 _(아래 하이픈)은 굴절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사어간 역시 어미와 함께 항상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굴절 표지가 부착되어 'ili_+_mbi'와 같이 표시된다. 이는 단어 분석의 과정에서는 'ili_mbi'와 같이 간략화되어 표시된다.

이 가운데에서 합성어로 확인되는 것 다음과 같이 총 6개이다.

(2) ① aibi[+ai+bi](뭐있나?/뭐있냐?), aisembi[+ai+se(_mbi)](뭐라냐?), aisem e[+ai+se(_me)](뭐라고?)
② elbenfembi[+elben+fe(_mbi)](질서없이 말한다),
③ ilimbaha[+ili_+_mbaha](익숙한/익숙했다),
salimbaharakū[+sali_+_mbaha(_rakū)](주장함이 없다)
CF: ilimbahabumbi[+ili_+_mbaha_+-bu(_mbi)](습관되게 하다),
ainambahafi(어찌 능히), alimbaharakū(참을 수 없이)

(2)①에서 ‘aibi’, ‘aisembi’ 등은 모두 ‘의문대명사+동사어간’ 구성의 합성어로 간주하였다. ‘aisembi’와 ‘aiseme’는 둘다 ‘aise_’를 어간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지만 공시적으로 별개의 동사형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다만 ‘aisembi’와 ‘aiseme’의 동사어간 형태의 개수는 1로 처리하였다) (2)② ‘elbenfembi’는 구 구조 ‘elben fembi’를 참고해서 합성어로 판단된 것이다. ‘elben fembi’의 뜻은 ‘띠를 베’는 것인데 ‘질서 없이 말한다’를 의미하는 ‘elbenfembi’로 된 것은 아마 은유적 기제에 따라 의미가 합성적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만주어에는 일부 동사 어간에 어미통합형어간 ‘_mbaha_’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제증정청문감』(1779)에 수록된 ‘_mbaha_’가 포함된 표제어는 (2)③과 같이 총 5개이다. 이들 단어의 조어 방식은 ‘동사+어미통합형’ 구성의 ‘합성어’로 표기하였다. 다만 ‘aina_+_mbaha_+_fi’, ‘ali_+_mbaha_+_rakū’는 그 용법과 뜻풀이에 따라, ‘동사어간+어미통합형어간+어말어미’ 구성의 부사어로부터 이루어진 합성어로 보아 ‘부사’로 처리하고 동사 목록에서는 배제하였다. ‘+ili_+_mbaha_+-bu(_mbi)’는 파생 접사 ‘-bu’에 의해 이루어진 ‘파생어’로 처리하고 동사 합성어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어미통합형어간 형태 ‘_mbaha_’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형태적으로는 ‘_mbaha_’에는 모음조화에 의한 짝인 ‘_mbehe_’나 ‘_mboho_’가 없

다. 원론적으로 '_mbaha_'는 '_me baha_'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접사화 혹은 어미화되지 못하고 어미통합형어간의 단계로 남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7] 의미적으로는 'X(V stem)+_mbaha_(예를 들어 alimbaha(참을 수 있는))'류 어휘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대개 구인 'X_me + baha-(예를 들어 alime baha)'의 의미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_mbaha_'의 원래 동사 'baha-(얻-)'가 구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ainambaha-', 'ilimbaha-' 모두 동사의 기본 의미 '얻-'의 의미보다는 '_을 수 있_[가능]'에 해당하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어미통합형어간 '_mbaha_'의 존재는 동사 'bahana_[할 수 있_]'의 양태적 용법과 관련되기도 하며 중국어 가능 구문 '得'에 대한 번역문의 용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18]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이 혼성어(blending word) 5단어도 포함된다.[19]

(3) ① *bektele(〈be(bethe)+ktele(juktele-))_mbi
② *gonggimbi(〈g(gai-)+onggi(unggi-))_mbi
③ *oktala(〈o(oforo)+ktala(aktala-))_mbi
④ *šaktala(〈ša(šan)+ktala(aktala-))_mbi
⑤ *tobtele(〈tob(tobgiya)+*tele-)_mbi

이들 단어들은 모두 『어제증정청문감』(1779)의 '補編'에 들어간 어휘들이라서 『어제청문감』(1708)으로부터 『어제증정청문감』(1779)에 추가된 단어들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제증정청문감』(1779)에 추가된 혼성어가 많

17)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_mbaha_'는 단순한 접사나 어미로 간주하기가 어렵고 '어미통합형어간'이라는 만주어로서는 약간 특이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중세 한국어의 시상형태소 '-어잇-'과 유사한 단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중세 한국어에 중국어 '得'의 용법은 '실어(곰)'으로 번역되어 해당 문장의 가능 구문(_ㄹ 수)에 대한 번역어로 반영된 바 있다. "終不得伸其情者多矣(마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못ᄒᆞᆯ 노미 하니라/끝내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이 많다)"(『훈민정음』〈예의편〉〉 ※여기서 『훈민정음』〈예의편〉의 '者'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맥락에서 '사람'이 아니라 '것'으로 번역하였다.

19) 만주어 혼성어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杜佳烜・唐千航, 「滿語截搭構詞法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 2021, 30-35면.

지만 이러한 혼성어는 동사 범주에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들을 예외적 구성으로 보았다.

이상의 사례들을 배제하고 추출한 만주어 동사 형태소 가운데 단독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어간의 사례는 총 1,996개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포함된다.

(4) absa_mbi(야위_다), abtara_mbi(떠들_다), abtukūla_ha(급소가 아닌 데 명중하_ㄴ), abuli_mbi(지쳐버리_다), abura_mbi(마구 잡아당겨 흩트리_다), aca_mbi(만나_다), aci_mbi(짐을 지_다), (…)

이들 1,996개의 단독형 동사어간에 의해 파생되는 만주어 파생어의 예에는 3,553개가 있다.(앞서 합성어 6단어, 혼성어 5단어를 포함하여 도합 5,560단어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만주어 동사의 어휘 부류(출현 빈도)

단일어	파생어[20]	합성어	혼성어	합계
1,996	3,553	6	5	5,560

2) 단일어 동사 어간의 사용양상

앞서 정리한 단일어 어간 1,996개 단어 중에는 같은 동사의 다른 굴절형(명령형, 완료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동사의 어간형으로부터 단순 굴절 어미를 배제하고 다시 중복된 어형들을 하나만 남기면 총 1,191단어의 동사 어간이 추출된다.

〈표 3〉 만주어의 동사 단일어 어간의 사례

만주어 동사	한국어(번역)	만주어 동사	한국어(번역)

20) 동사 파생어의 어근에는 단일어 동사어간뿐만 아니라 불완전어근, 명사 및 형용사 등의 정어(整語)가 포함된다. '정어(整語)'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양진・신상현, 「『同文類解』 語錄解 譯註」, 『인문학연구』 35,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17, 175-209면.

absa-	야위-	aja-	그어 찢-
abtara-	떠들-	ajila-	구르-
abtukūla-	급소가 아닌 데에 명중하-	ajir-	잘못 보-
abuli-	지쳐버리-	aka-	(슬퍼하-)
abura-	마구 잡아당겨 흩트리-	akda-	믿-
aca-	만나-	akiya-	완전히 마르-
aci-	지-	akja-	우르-
aci-	움직이-	aksa-	(피하-)
acila-	걸러 넘어지-	akša-	썩-
ada-	(가까이하-)	akū-	없-
adunggiya-	괴롭히-	ala-	알리-
adura-	궤양 등의 상처가 나빠지-	alami-	비스듬히 짊어지-
afa-	싸우-	alda-	발로 가추하를 막-
aga-	비가 오-	algi-	유명해지-
ahūra-	(짐승이) 두려워하여 엎드리-	algiya-	기름을 걷어 내-
aibi-	붓-	alha-	제사할 때 신을 칭송하-
aifu-	약속을 어기-	alhūda-	본받-
aihada-	동물이 뛰-	ali-	받-
aisi-	돕-	ališa-	(심심하-)
aitu-	되살-	aliya-	기다리-/후회하-
(이하 생략)			

〈표 3〉의 동사 어간 가운데에는 여전히 -da-, -la-, -ra-, -re-', -giya-, -hiya-, -kiye-, -liye, -ša- 등과 같은 접미사 결합형으로 추정되는 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래에 구별될 다른 파생어들에서 보이는 의미적 유형성을 보이지 않는 예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적어도 『어제증정청문감』(1779)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단일어로 어휘화되어 굳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를 어원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분석해 낸다면 순수한 만주어 동사 단일 어간의 목록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로 추출될 것으로 이해된다. 즉 만주어 동사 단일어간은 파생접미사들이 융합되어 단일어화한 것들을 배제할 때 실제 만주어의 고유어 동사 단일어간은 1,000단어보다 적은 수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만주어 고유어 동사 어간의 목록을 추출해 가는 과정은 앞으로 여타의 만주어 자료를 통해 좀 더 치밀하게 추출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들 목록 가운데 최소 100여 단어가 현대 한국어 혹은 중세 한국어와 고대 한국어의 동사 어간과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한 유사성을 뛰어 넘는 이 두 언어 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21]

〈표 4〉 한국어 동사 단일어간과 동형성을 보이는 만주어 동사 단일 어간

만주어	의미	한국어(MK/중세,AK/고대)[22]
ala-	알리-	알리-
ara-	짓-/쓰-/만들-	아로새기-/아름답-
asha-	허리에 차-/띠-	AK*얹-
bu-	주-	-우-(사동)
cuku-	완전히 지쳐 쓰러지-	??죽-[死]
cukū-	고개를 숙이-	??주억거리-
daha-	따르-	다그-/닿-
dahi-	(반복하-)	??AK*다ᄒᆞ-/답-
dahū-	(반복하-)	??AK*다ᄒᆞ-/답-
dasa-	고치-	AK*닷-(다시/다음)
dasi-	닫-	닫-
dasihi-	매 등이 포획물을 쳐서 내리-	닫-기-/달리-
dasihiya-	떨-	듣-/뜨리-
dehe-	순금을 제련하-/담뱃잎을 덮-	덮-
dende-	나누-	더느-/더디-
dengge-	멀리 던지-	MK더디-
dori-	(말 따위가) 뛰-	MKᄃᆞᆫ-[走]
etu-	입-	AK*옷-/옷[衣]
fara-	곡식을 말리-	바래-
fata-	(과일을) 따-	MKᄯᅳᆨ-[摘][23]
fe-	베-/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	베-
fehu-	밟-	MK박ᄎᆞ-/박구르-
feksi-	달리-	MK박ᄎᆞ-/박구르-
feku-	뛰-	MK박ᄎᆞ-/박구르-
fele-	머리를 묶-/목숨을 버리-(걸-)	MKᄇᆞ리-/바리-
feššе-	연속하여 차-	MKᄇᆞᆺ-
fete-	파-	MKᄑᆞ-
firu-	빌-/저주하-	빌-

21) 이러한 관점은 Ki-Moon Lee, S. Robert Ramsey,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과 김양진, 「한국어와 만주어의 형태론적 동형성」,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앞의 글, 2016 및 당천항·김양진, 「한국어 동사 '타-'와 만주어 동사 'fithe-' 간의 상관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등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김양진, 앞의 글, 2015에서는 이러한 어휘적 동형성을 두 언어의 분기에 따른 계통적(genetic) 관계가 아니라 수렴에 따른 혼효어적(creolic) 관계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se-	기울-/경사지-/갈라져나오-	빗-
fithe-	타-	MKᄠ-
fo-	트-/갈라지-	MKᄑ-[發穗]
fodo-	숨차-/숨가쁘-	MKᄫ-
foso-	비추-/쏘-	MKᄲ-, MKᄇᄉ-/ᄇᄉ-/브스-
fulgiye-	(불을) 불-	불-
fumere-	버무리-	버무리-〈MK버므리-
fuse-	(번식하-)	붓-〈MK븓-/블-
fushe-	(부채질하-)	MKᄫ-
fushu-	(꽃봉오리가) 터지-/(불꽃이)올라가-/(화약이)터지-	붙-
fusu-	물을 뿌리-	붓-
gai-	가지-	갖-〉가지-
gosi-	사랑하-/쓰라리-	MK고이-/괴-
gubule-	풀 나무 등이 얽히게 생기-	??AK*구블-
hadu-	(농작물을) 베-/거두-	거두-
hala-	갈-	갈-
hangga-bu-	물에 젖-(-bu- 숨막히-)	??MKᄀᆷ-[浴]
hari-	(인두로) 다리-/(불로) 지지-/편들-/가리-(보호하-)	MKᄀ리-[蔽]
haša-	둘러싸-	??MKᄀ리-우-
heje-	거친 숨을 쉬-/가쁘-/약혼하다	MKᄀᆞᆷ-
here-	건지-/거르-	거르-
herge-	종이를 뜨-/거르-	거르-
hergi-	서리-/얽-	얽-/MKᄉᆞᆰ-
hira-	곁눈으로 보-	MKᄒᆞᆱ-/흙-/흘긔-
hirhū-	말 등 짐승들이 벽에 문지르-/남을 건드리-/자극하-/보채-	MK힐후-
hete-	걷-	걷-[卷]
hisha-	(칼을) 갈-/살짝 스치-/바짝 붙-/밀착하-	??MKᄀᆞᆺ-/그스-
hithe-	(물을/술을) 뿌리-	흩-
hiyada-	겯-[編]/짜깁-/누비-	MKᄀᆞᆫ-
hiyala-	(아이를 등에 묶어서) 업-	MKᄀᆞᆯ-(겯-)
hūla-	(글을) 소리내어 읽-/(큰소리로 사람을)부르-/(닭이) 울-	MKᄀᆞᆯ-[呪]
ibu-(〈yabu-)	걷-/다니-	MKᄂᆡ-[行]
ili-	서-	MKᄂᆞᆯ-[起]
jafa-	잡-	잡-
jen-	ᄎᆞᆷ-〉참-	MKᄎᆞᆷ-
ji-	오-	지-
jilga-	(새 등이) 울-	지르-/질그-
jokja-	족치-	족치-

karma-	감추-	MK갊-[藏]
mara-	말-	말-[拒]
mari-	되돌리-	??MK말-이-
meihere-	메-	메-+걸-(〈거르-)
mele-	물 먹이-	(물) MKᄆᆞᆯ-
memere-	생각을 한 데에 머무르-	MK머믈-
merhe-	(참빗으로) 머리를 빗-	AK*멁-
monji-	만지-	문지르-/만지-
mukū-	물을 머금-	먹-
o-	되-	오-
šabura-	졸리	AKᄌᆞ부랍-
saha-	쌓-	MK샇-
seshe-	싫어하-/흔들-/떨-/뿌리-	MK섥-
siji-	(박음질하-)	시치-
sime-	스미-	MK스믜-
simi-	빨-, 들이마시-. 흡입하-	MK스믜-
sinda-	놓-	??AK*싣-/MK싣(風)
somi-	숨-	숨-
šorgi-	뚫-/재촉하-/화살들이 한 곳에 맞히-	??MK*ᄲᅩᆯ-/*ᄲᅩᆯ-
sota-	함부로 흩뿌리-	MK솓-
šoyo-	줄어들-	죄-/조이-
šufa-	긁어모으-/모기가 피를 빨-	??줍-
tafu-	오르-	톺-
tama-	담-	담-
tasga-	덖-	AK*덦-
tata-	머무르-/끌-/당기-/볍-/묵-/말하-	닫-/닿-
tefe-	땅이 타-/불 타 버리-	??덥-
tele-	가죽을 펴-	다리-
teliye-	찌-	달이-
torgi-	글씨 옆에서 동그라미를 그리-	돌이-
tori-	흔들거리-	AK*들-
tuhe-	떨어지-	??AK*듣-
tulbi-	헤아리-	MK둡-
tule-	그물 치-	두르-
turibu-	떨어지-	AK*듣-이-
tuta-	뒤떨어지-/뒤처지-	듣-
ufara-	잃-	이블-
ulu-	므르-(무너지다)	MK므르-
ure-	익-/익숙하-/상처받-/섧-/슬피 울-/굶-	울-
urhū-	(말이) 놀라-/(말 등이 놀라서) 뒤로 보-	??MK올히-(위협하다)
yabu-	걷-	MK녀-[行]

22) 〈표 4〉에서, MK는 중세 한국어(Middle Korean), AK는 고대 한국어(Ancient Korean)을 가리킨 것이다. *는 고대 한국어(AK)로 재구된 사례이고 ??는 만주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남아 있는 사례들을 표시한 것이다. [표4]의 만주어 동사어간

Lee & Ramsey(2011)[24], 김양진(2015)[25] 등에서 제시된 만주어—한국어 동사 어간의 동형성 사례[26]를 뛰어넘는 〈표 4〉의 목록은 일부 어형이 통합되거나 추가로 분리되는 사례에 의해 수정될 수 있겠으나 한국어의 역사적 맥락에서 확인되는 동사어간들과 『어제증정청문감』(1779)에 포함된 근대 시기 만주어 동사 어간의 목록이 대략 10% 수준에서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사 어간의 차용이 어려운 한국어와 만주어의 공통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예외적인 사항이다.

한편 만주어 동사 단일어 어간의 어두음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5〉 만주어 동사 단일어간의 어두음 실현 빈도

a	e	i	o	u	g	k	d	t	n	b
62	39	30	22	49	67	66	71	87	51	82
f	m	s	h	š	j	c	l	w	y	
89	57	122	89	44	62	41	22	18	21	

만주어 동사 어간의 어두음이 비교적 만주어 동사어간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개음절어인 만주어의 특성상 만주어 동사어간의 말음은 모음인 a, e, i, o, u로 한정되며 따라서 어간말음절의 어두 자음은 1음절 어간까지를 포함해서 만주어 동사 어간의 어두음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어중의 음절 두음에서는 r음의 어두음이 생산적으로 나타나서 만주어의 두음 법칙이 l보다는 r음에서 더 제약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사 파생접미사의 빈도 및 분석

과 한국어 동사어간의 형태론적 관련성은 추후의 논의를 참조할 것.

23) 만주어의 'fithe-[彈/撣/開/爆/炸]'와 한국어 '타-[燒/乘/彈]' 및 중세한국어 'ᄠᅳ-[裂/彈/受]'의 형태론적 상관성에 대해서는 당천항·김양진, 앞의 글의 논의를 참조할 것.

24) Ki-Moon Lee & S. Robert Ramsey, Op. cit.

25) 김양진, 앞의 글, 2015.

26) Ki-Moon Lee & S. Robert Ramsey, Op. cit.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 동사 어간 중 약 70여 단어의 동형성을 확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여 단어의 목록을 제공한 바 있으며 김양진, 앞의 글, 2015에서도 대략 Ibid.와 비슷한 수의 비교 어휘를 제공한 바 있다.

다음은 만주어의 동사 파생어를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주요 파생접미사의 사용 빈도를 중복된 단어가 삭제되지 않은 출현 횟수의 통계치와 중복된 단어를 삭제한 파생 동사의 통계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파생접미사의 순서는 해당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동사의 빈도수에 따라 배열되었다.

〈표 6〉 만주어의 파생접미사의 사용 빈도

빈도순위	접미사	출현 횟수	파생어 개수	구성소적 접사[27]
1	-LA_	803	422	ci, ku, sA, s, si,
2	-šA_	378	252	hA, gA, ki, kU, m, r, rin, tA
3	-nu_	151	143	-
4	-ndu_	138	135	-
5	-nA2_	143	118	-
6	-dA_	166	115	hū, r
7	-nA1_	109	92	-
8	-jA_	125	88	gan, l, n, r, mer
9	-nji_	81	75	-
10	-rA_	118	62	-
11	-rAn_	125	57	-
12	-tA_	72	45	šA, si
13	-cA_	51	42	-
14	-hiyA_	126	38	ci
15	-se_/-si_	39	21	-
16	-ntu_	9	9	-
17	-mi_	11	9	-
18	-nA3_	10	7	-
19	-niyA_	16	7	-
20	-liyA_	19	5	-
21	-liyAn_	14	5	-
22	-sin_	32	4	-
23	-nggi_	5	3	-
24	-šAn_	7	2	-

27) 만주어의 특정 단어 뒤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 접미사를 고영근,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 이근수 박사 환력기념논총』, 1992 등의 논의에 따라 구성소적 접미사로 부르고자 한다. 이들 구성소적 접미사는 한국어에서의 '선어말어미'들에 대응된다. 한국어의 '선어말어미'들은 이러한 구성소적 접미사의 단계를 거쳐 더 문법화되는 과정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에서 '구성소적 접미사'란 '동사어근과 해당 접사의 중간에만 첨가 가능한 성분'으로 특정 동사에서만 확인되는 제약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 'ahūcilambi'는 '+ahū(ahūn)-ci-la_mbi'로 분석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ci-'는 다른 단어 구성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 동사에만 보이는 것이다. 따로 'ahū-ci'나 'ahū-cin'과 같은 단어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어근형성소' 혹은 '어근형성 전용요소'라고 할 만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때의 'ci'를 특정 어근과 접사 중간에만 첨가되는 '구성소적 접미사'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ci1-, -ci2-, -gA-, -gan-, -hA-, -hū-, -ki-, -ku-, -kU-, -l-, -m-, -mer-, -n-, -r1-, -r2-, -r3-, -rin-, -s-, -sA-, -šA-, -si1-, -si2-, -tA-' 등의 목록이 포함된다.

〈표 6〉에 제시된 결과 및 〈표 6-1〉, 〈표 6-2〉, 〈표 6-6〉, 〈표 6-8〉, 〈표 6-12〉, 〈표 6-14〉의 예들을 보면 이와 같은 구성소 접미사에 후행하는 접미사에는 '-LA_', '-šA_', '-dA_', '-jA_', '-tA_', '-HiyA_' 등에 제한되어 있다. 각 접미사별로 결합한 단어(접사 선행성분)의 유형과 패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접미사의 이형태와 대표형태의 관계에 대한 기준 및 기타의 보충적 설명은 각 접미사 형태의 대표형에 각주로 첨부하였다.

〈표 6-1〉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LA_'[28]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명사	-LA_	-	aba-la_, acihi-la_, adu-la_	213
불완전어근	-LA_	-	abta-la_, beji-le_, bi-le_	91
형용사	-LA_	-	akšu-la_, albatu-la_, bardanggi-la_	67
부사	-LA_	-	bada-la_, faksa-la_, fondo-lo_	19
동사어간	-LA_	-	aca-la_, daha-la_, hafu-la_, nei-le_	10
의문사	-LA_	-	aika-na_, ai-na_	2
어기(둘 이상의	-LA_	-ci1-	ahū-ci-la_, boigo-ci-la_, neige-ci-le_	5

28) 형태소 '-LA_'에는 이형태 '-la_', '-le_', '-lo_', '-na_', '-ne_' 등이 포함되어 있다. n계열의 형태는 어기가 의문형 'aikan(뭔가?)', 'ain(얼마냐?)'일 때 '-la_', '-le_'가 자음동화에 의해 변형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aikan+-la_ 〉 aika-na_', 'ain+-la_ 〉 ai-na_'와 같은 형태 재구조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LA_	-ku-	cu-ku-le_	1
	-LA_	-sA-	nem-se-le_	1
	-LA_	-s-	dokdo-s-la_, ende-s-la_	2
	-LA_	-si1-	alda-si-la_, dube-si-le_	2

〈표 6-2〉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šA_'[29]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šA_	-	asur-ša_, bura-ša_, eb-še_	71
동사어간	-šA_	-	bišu-ša_, daba-ša_, fatar-ša_	61
명사	-šA_	-	butha-ša_, dai-ša_, hebe-še_	51
형용사	-šA_	-	elhe-še_, hala-ša_, jibge-še_	40
어기(둘 이상의 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šA_	-r1-	buye-r-še_, ikū-r-ša_, funtu-r-ša_	13
	-šA_	-kU-	amca-kū-ša_, bulca-kū-ša_, cende-ku-še_	5
	-šA_	-HA-	geji-he-še_, ib-ka-ša_, hesi-he-še_	4
	-šA_	-gA-	bil-ge-še_, bur-ga-ša_	2
	-šA_	-m-	dule-m-še_, sere-m-še_	2
	-šA_	-ki-	cim-ki-ša_	1
	-šA_	-ri(n)-	ša-ri-šA_	1
	-šA_	-tA-	tab-ta-šA_	1

〈표 6-3〉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u_[30]'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u_	-	aca-nu_, basu-nu_, donji-nu_	143

〈표 6-4〉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du_'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du_	-	aca-ndu_, buye-ndu_, ekše-ndu_	135

29) 형태소 '-šA_'에는 이형태 '-ša_', '-še_', '-š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30) 'X-nu_'형 동사 어간이 대개 'X-ndu_'형 동사 어간과 동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사 파생접미사 '-nu_'가 동사 파생접미사 '-ndu_'로부터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접미사 '-nu_'와 '-ndu_'가 형태적으로 상보적 분포 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두 접미사를 별개의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표 6-5〉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A2_[31]'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명사	-nA2_	-	bongko-no_, cilci-na_, hara-na_	81
불완전어근	-nA2_	-	cerhuwe-ne_, fiyangta-na_	37

〈표 6-6〉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dA_[32]'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형용사	-dA_	-	balama-da_, cisu-de_, dalhi-da_	50
명사	-dA_	-	arga-da_, bur-de_, carki-da_	29
불완전어근	-dA_	-	ca-da_, dek-de_, doho-do_	19
동사어간	-dA_	-	cibsi-da_, fara-da_, guwen-de_	12
부사	-dA_		gengge-de_, her-de_	2
어기(둘 이상의 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dA_	-r2-	haha-r-da_	1
	-dA_	-hū-	yar-hū-da_	1

〈표 6-7〉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A1_[33]'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A1_	-	aca-na_, baica-na_, fide-ne_	87
불완전어근	-nA1_	-	be-ne_, ga-na_, hel-ne_	5

〈표 6-8〉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jA_[34]'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jA_	-	abta-ja_, bilur-ja_	32
형용사	-jA_	-	anahūn-ja_, banihūn-ja_	15
부사	-jA_	-	bulin-ja_, eyer-je_, cobto-jo_	11
명사	-jA_	-	contoho-jo_, urgun-je_	6
동사어간	-jA_	-	niyele-je_, nuka-ja_,	3

31) 형태소 '-nA2_'에는 이형태 '-na_', '-ne_', '-n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nA2_'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출현을 나타내는 파생접미사로서 한국어 동사 '나다'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nA2_'의 이런 의미 특성은 '-nA1_', '-nA3_'과 구별된다.

32) 형태소 '-dA_'에는 이형태 '-da_', '-de_', '-d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33) 형태소 '-nA1_'에 이형태 '-na_', '-ne_', '-n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nA1_'은 동사 어간에 붙여 '어떤 동작을 하러 가'는 의미를 나타낸다. 김양진(2016)에서는 이때의 '-nA1_(-na_/-ne_)'가 의미적으로 한국어의 '가-[往]'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34) 형태소 '-jA_'에는 이형태 '-ja_', '-je_', '-j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기(둘 이상의 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jA_	-l-	haya-l-ja_, sumbu-l-ja_, koiko-l-jo_	7
	-jA_	-N-	go-n-ja_, hala-n-ja_, aca-m-ja_[35]	6
	-jA_	-r3-	mele-r-je_, fula-r-ja_, gele-r-je_	3
	-jA_	-gan-	suwaliya-gan-ja_, sori-gan-ja_	3
	-jA_	-mer-	gel-mer-je_	1

〈표 6-9〉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ji_'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ji_	-	aca-nji_, donji-nji_, fonji-nji_	75

〈표 6-10〉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rA_'[36]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rA_	-	faita-ra_, monji-ra_, saci-ra_	18
형용사	-rA_	-	buya-ra_, ehe-re_, hata-ra_	17
명사	-rA_	-	anda-ra_, idu-ra_, niyama-ra_	14
불완전어근	-rA_	-	gaka-ra_, miyošo-ro_, nima-ra_	12
부사	-rA_	-	kusku-re_	1

〈표 6-11〉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rAn_'[37]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rA(n)_	-	fula-ra_, ge-re_, jibe-re_	34
형용사	-rA(n)_	-	amba-ra_, mene-re_, colgo-ro_	9
부사	-rA(n)_	-	bada-ra_, bekte-re_, mila-ra_	6
명사	-rA(n)_	-	goho-ro_, hoto-ro_, cikta-ra_	4
(n형)동사어간	-ru(n)_	-	su-ru_, wa-ru_, we-ru_	3
동사	-rA(n)_	-	gete-re_	1

35) 'acamja-'의 'm'은 원래 명사 어기인 'acan'의 말음 'n'이 '-ja_'를 선행할 때 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주어의 구개자음 j앞에 n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왜 'acan'의 말자음 n이 j앞에서 m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6) 형태소 '-rA_'에는 이형태 '-ra_', '-re_', '-ro_'가 포함되어 있다. 불완전어근에 결합하는 접미사 형태 '-rA_'는 '-rAn_'(n형 어간형성 파생접미사)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rAn_'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rA_'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볼 때, 아래의 '-rA(n)_'과 동일한 형태소로부터 분화되어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37) 형태소 '-rAn_'에는 이형태 '-ran_', '-ren_', '-ron_', '-run_'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접미사 '-rAn_'은 표면적으로는 형태 '-rA_'로 실현되지만 일련의 이형태를 통해 'n형 어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rAn_'은 주로 불완전어근과 결합하기 때문에 동사어간, 명사, 형용사 등에 고루 붙는 '-rA_'와는 구별된다.

〈표 6-12〉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tA_[38]'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tA_	-	amca-ta_, ana-ta_, jafa-ta_	29
불완전어근	-tA_	-	ge-te_, hesi-te_, mei-te_	4
명사	-tA_	-	ham-ta_, yasa-ta_,	2
형용사	-tA_	-	hol-to_	1
어기(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tA_	-si2-	koima-si-ta_, kab-si-ta_, tab-si-ta_	2
	-tA_	-šA-	mele-še-te_	1
	-tA_	-hA-	hesi-he-te_	1

〈표 6-13〉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cA_[39]'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cA_	-	amga-ca_, beder-ce_, dende-ce_, (…)	30
불완전어근	-cA_	-	fiyoko-co_, giyahal-ca_, niyamar-ca_	7
부사	-cA_	-	gengge-ce_, guwele-ce_, kutur-ce_	3
형용사	-cA_	-	niolhu-ce_	1

〈표 6-14〉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HiyA_[40]'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HiyA_	-	beji-hiye_, faci-hiya_, feb-giye_	19
동사어간	-HiyA_	-	afa-kiya_, aliya-kiya_, fuya-kiya_	12
형용사	-HiyA_	-	haci-hiya_, ici-hiya_,	3
명사	-HiyA_	-	edung-giye_, muda-kiya_	2
어기(둘 이상의 구성소에 의해 이루어짐)	-HiyA_	-ci2-	na-ci-hiya_, tuwan-ci-hiya_	2

38) 형태소 '-tA_'에는 이형태 '-ta_', '-te_', '-t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39) 형태소 '-cA_'에는 이형태 '-ca_', '-ce_', '-c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40) 형태소 '-HiyA_'에는 이형태 '-hiya_', '-hiye_', '-kiya_', '-kiye_', '-nggiya_', '-nggiye_', '-giya_', '-giye_'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형태들에 형태의 두음과 말음에서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본고는 만주어 전체 동사를 분석하는 작업이므로 '-HiyA_'의 이형태들을 명확하게 하나의 형태소로 세우기가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형태들을 '-HiyA_'의 이형태로 처리하였다.

〈표 6-15〉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se_/-si_'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의성의태어근	-si_	-	cak-si_, kak-si_, lab-si_, (…)	18
의성의태어근	-se_	-	cib-se_, her-se_	2
명사	-si_	-	sui-si_	1

〈표 6-16〉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tu_[41]'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명사	-ntu_	-	aha-ntu_, hiyoošu-ntu_, muha-ntu_, (…)	6
불완전어근	-ntu_	-	gūwaisu-ntu_, siša-ntu_	2
동사어간	-ntu_	-	delhe-ntu_	1

〈표 6-17〉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mi_[42]'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명사	-mi_	-	bele-mi_, doko-mi_, se-mi_, (…)	7
형용사	-mi_	-	gar-mi_	1
불완전어근	-miya_	-	hūwa-miya_	1

〈표 6-18〉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A3[43]'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A3_	-	baha-na_, daba-na_, ili-na_, (…)	7

41) 형태소 '-ntu_'에는 이형태 '-ntu_', '-tu_'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어 'hiyoošuntu'과 같은 경우에는 어근인 'hiyoošun'을 빼고 남은 '-tu_'를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다만 이들 일부 단어의 경우 어근에 'n'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형태 '-ntu_', '-tu_' 중에서 대표형은 '-ntu_'로 택하였다.

42) '-mi_'는 명사나 불완전 어근에 붙여 동사를 파생하는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접미사로서의 '-mi_'에 의해 파생된 동사는 옷 따위를 재봉하는 일의 의미로 쓰이거나 사물을 분해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사물을 재조직해주는 일이라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hūwamiyambi(껍질을 벗기다)에 보이는 '-miya_'도 '-mi_'와 형태·의미적으로 가진 유사성을 고려하여 한데 묶어서 분류하였다.

43) 형태소 '-nA3_'에는 이형태 '-na_', '-ne_', '-no_'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 어간에 '-nA3_'이 붙이면 파생된 동사 어간이 '결과 상태'인 상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어 '가다'의 조동사적 용법을 고려하면 '-nA3_'은 '-nA1_'(한국어 '가-[往]'와 의미적 상관성을 지닌다)로부터 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nA1_'에서는 높은 의미적 일관성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 형태를 별개의 형태소로 처리하였다.

〈표 6-19〉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iyA_[44]'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iyA_	-	ebe-niye_, ekiye-niye_, sa-niya_,	7

〈표 6-20〉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liyA_[45]'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liyA_	-	fu-liya_, ju-liya_, wa-liya_, (…)	5

〈표 6-21〉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liyA(n)_[46]'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liyA(n)_	-	bebe-liye_, gūwa-liya_, hūwa-liya_	4
동사어간	-liyA(n)_	-	uba-liya_	1

〈표 6-22〉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nggi_'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동사어간	-nggi_	-	ala-nggi_, bu-nggi_, tuwa-nggi_	3

〈표 6-23〉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si(n)_[47]'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si(n)-	-	do-si_, wa-si_, we-si_, cik-si_	4

44) 접미사 '-niyA_'의 통계는 형태를 위주로 하였다. '-niyA_' 파생어의 선행 성분은 혹은 비음으로 끝난 어근이나 혹은 'n형 어간'으로 재구된 것이다. 따라서 '-niyA_'의 두음인 'n'이 선행 음절의 비음에 의해 동화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niyA_'를 다른 형태소와 직접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서 하나의 형태소로 판단하였다.

45) 형태소 '-liyA_'에는 이형태 '-liya_', '-liye_' 등이 포함되어 있다.

46) 형태소 '-liyAn_'에는 이형태 '-liyan_', '-liyen_'이 포함되어 있다. '-liyAn_'의 말음 'n'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형태의 실현을 통해 확인된다. '-liyAn_'을 선행하는 성분에는 '변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형태소 '-liyA_'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47) 접미사 '-si(n)_'에 의해 이루어진 단어는 '-rA(n)_'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n형 어간'과 관련한 다양한 이형태를 통해 확인되었다.

〈표 6-24〉 만주어의 동사파생접미사 '-šA(n)_[48]'의 사용 빈도

어기	동사파생접미사	구성소접미사	용례	용례수
불완전어근	šA(n)	-	gūwa-šA_	1
동사어간	šA(n)	-	uba-šA_	1

〈표 6〉의 내용을 바탕에 두고 〈표 6-1~24〉까지 각각의 접미사들이 다양한 선행성분과 결합하는 패턴과 사용 빈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어떤 접미사는 동사어간이나 명사, 형용사 등 어떤 하나의 범주만을 선행성분으로 택하지만 어떤 접미사는 둘 이상의 다양한 범주를 선행성분으로 택하여 파생어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접미사의 선행성분의 유형에 따라 각 접미사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파생해 내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접미사들의 생산성이 선행성분과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우선 선행성분을 동사어간, 명사, 형용사, 불완전어근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택하고 각 선행성분의 종류별로 결합하는 각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파생동사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자.

〈표 7-1〉 동사(어간) 어기에 결합된 접미사로부터 파생된 파생동사의 수

접미사	-nu_	-ndu_	-nA1_	-nji_	-šA_	-cA_	-tA_	-rA_
파생어수	143	135	87	75	61	30	29	18

〈표 7-2〉 명사 어기에 결합된 접미사로부터 파생된 파생동사의 수

접미사	-lA_	-nA2_	-šA_	-dA_	-rA_	-jA_	-ntu_	-rAn_
파생어수	213	81	51	29	14	6	6	4

〈표 7-3〉 형용사 어기에 결합된 접미사로부터 파생된 파생동사의 수

접미사	-lA_	-dA_	-šA_	-rA_	-jA_	-rAn_	-hiyA_
파생어수	67	50	40	17	15	9	3

〈표 7-4〉 불완전어근에 결합된 접미사로부터 파생된 파생동사의 수

48) 형태소 '-šA(n)_'에는 형태 '-ša(n)_'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형태소의 의미는 [6-21]의 '-liyA(n)_'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접미사	-lA_	-šA_	-nA2_	-rAn_	-jA_	-dA_	-hiyA_	-rA_
파생어수	91	71	37	34	32	19	19	12

〈표 7-1〉에 제시된 동사(어간) 어기에 접미사들이 결합된 양상은 〈표 7-2~4〉에 제시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불완전어근에 접미사들이 결합된 양상과 크게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사(어간) 어기에 생산적으로 결합된 접미사들의 앞 4가지(즉 -nu_, -ndu_, -nA1_, -nji_)가 다 자음 'n'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명사, 형용사, 불완전어근을 어기로 하여 결합하는 접미사에서는 이런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명사와 불완전어근을 어기로 택하는 -nA2_와 명사어기에만 결합하는 -ntu_의 예외가 있는데 이는 동사어간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명사(이른바 어간형명사)의 존재나 '-ntu_'의 선행어근이 대개 n형 말음을 가진 명사였음을 고려할 때 이들은 선행어근의 어말음 n이 후행 접미사의 일부로 재구조화된 경우로 보아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다.

한편 명사, 형용사, 불완전어근을 어기로 하는 접미사들 간에는 다음가 같은 뚜렷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인다. 유사성의 예를 들자면, 동사 파생접미사 '-LA_'와 '-šA_'는 명사, 형용사, 불완전어근의 세 유형의 어기와의 결합이 모두 생산적이다. 특히 이들 명사, 형용사, 불완전어근 등이 서술성을 지니는 경우에 '-LA_'와 '-šA_'의 결합이 생산적인 것을 볼 때, 만주어의 동사 파생접미사 '-LA_'와 '-šA_'는 한국어에서 서술성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하-, 되-' 등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접미사로 이해된다. 차이점의 예는, 파생접미사 '-nA2_'은 주로 명사 어기와만 결합하며, 파생접미사 '-dA_'는 주로 형용사 어기와만 결합하고, 파생접미사 '-rAn_'은 불완전어기와 주로 결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모음 어간'과 'n형 어간'의 쌍형 어간형 동사

위에 제시된 파생접미사들을 형태적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CV 부류(예: -lA_, -dA_, -cA_)', 'CCV(nCV/ngCV) 부류(예:

-ndu_, -nji_, -ntu_, -nggi_)' 및 'CVn 부류'이다. 만주어에서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이는 'nCV〉CV(예: -ndu_〉-nu_)' 그리고 'CVn〉CV(예: -rAn_〉-rA_)' 등의 형태 변화를 참고하면, 만주어의 동사 파생접미사에는 선행 어기의 형태 조각(morphological splinter)이 'CV' 구조의 접사 두음으로 합류되거나 파생접미사의 형태 말음 n이 탈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의 동사 어간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 n으로 끝난 어간이 쌍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특히 'n형 어간'이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n형 어간과 비-n형 어간이 쌍형으로 존재할 때, 'n형 어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n형 어간'을 비롯하여 형태 조각의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는 경우를 대개는 재구조화된 굴절어미나 파생접미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만주어 동사 어간의 형태에는 이형태가 없고 굴절 어미나 파생접미사에 이형태가 많아지게 되었는데,[49] 본고에서는 이러한 'n형 어간'의 문제를 통시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형태소에서는 여전히 'n형 어간'을 공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만주어의 'n형 어간'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실현될 때 어간말음에 말자음 '-n'이 추가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들 어간에 굴절어미가 통합되는 경우, 해당 굴절어미가 다양한 이형태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n형 어간'에 어미 '-hA_'가 결합하면 이형태로 '-ka_, -ke_, -ko'와 함께 '-ngka_, -ngke_, -ngko_' 등이 실현되고, 어미 '-rA_'가 결합할 때는 그 이형태로 '-nda-ra_, -nde-re_, -ndo-ro_' 등이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굴절어미의 다양한 이형태의 실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가벨렌

49) 이와 같이 어간 형태의 일부가 어미 형태로 재구조화되는 경우는 한국어 '하-' 뒤에서의 '-어'의 이형태 '-여'나 '푸르-, 누르-, 이르-' 뒤에서의 '-어'의 이형태 '-러' 등에서도 확인된다. '-여'는 '하-'의 이전형 'ᄒᆞ-'의 일부, '-러'는 '푸르-, 누르-, 이르-'의 쌍형어간이던 '푸를-[靑], 누를-[黃], 이를-[到]'의 일부가 어미에 융합되어 재구조화된 것이다.

츠(Gabelentz, 1864)[50]에 그 기원을 두고, 최학근(1975)[51], 당천항(2021)[52] 등에서 확장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에 제시된 'n형 어간'으로부터 기원한 이형태의 다양성을 참고하여 『어제증정청문감』(1779)에 실린 어휘의 파생형과 굴절형으로부터 'n형 어간' 어휘들을 추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어제증정청문감』(1779)의 동사에서 'n형 어간'인 동사 어간은 총 211개로 확인되었다.

이들 'n형 어간'을 지니는 동사 중에는 단일 형태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있다. 특히 3.3절에 제시된 파생접미사 '-rA(n)_', '-liyA(n)_', '-šA(n)_', '-si(n)_' 등은 'n형 어간'의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들로 볼 수 있다. 이들 'n형 어간'의 동사 어간 211개 가운데 109개가 파생어인데 특히 접미사 '-rA(n)_'에 의해 파생된 어휘가 63개로 가장 많았다.[53]

'n형 어간' 중에는 다음과 같이 단일 어간과 복합 어간의 예가 있다.

(5) 단일형 n형 어간 : algin-(유명하-), ban-(게으르-), don-(새 등이 앉-), duhen-(끝나-), ergen-(쉬-), foson-(비치-), fun-(저리-), guwen-(울-), ilan-(피-), jalun-(차-).

(6) 복합형 n형 어간 : badaran-(+bada-ran;퍼져 가-), geren-(±ge-ren;밝게 되-), gūwaliyan- (±gūwa-liyan;맛이 변하-), ubaliyan-(+uba-liyan;변하-), gūwašan- (±gūwa-šan;맛이 변하-), ubašan-(+uba-šan;배반하-), dosin-(±do-sin;들-), wesin-(±we-sin;오르-).

---

50) Gabelentz, H. C. von der, "Beiträge zur mandschuischen Conjugationslehr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8(1/2). Wiesbaden: F. A. Brockhaus, 1864, pp. 202-219.

51) 崔鶴根, 「滿洲語에 있어서의 未完結 過去語尾: -fi(-mpi, -pi)에 對해서」, 『어학연구』 11-2, 서울대 언어교육원, 1975, 111-117면.

52) 당천항, 「만주어 'n형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알타이학보』 31, 한국알타이학회, 2021, 1-25면.

53) 'n형 어간' 목록에서 확인된 -rA(n)_'의 파생어 수 63개는 〈표 6〉에 제시된 파생접미사 '-rA(n)_'에 의한 파생어 수 57개와 다르다. 이는 3.3절에서,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의 목록을 확인할 때 형태 위주로 하되 동형의 것은 하나의 어간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n형 어간'의 목록을 확인할 때는 의미 차이가 심한 동형어를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였다. 이 두 처리 과정에서 'nioro-'와 'fere-'에 대해서는 분석을 보류하였다.

(5)는 단일어간으로서의 'n형 어간'의 사례이고, (6)은 복합어간으로서의 'n형 어간'의 사례이다. 복합어간으로의 'n형 어간'의 선행 성분은 명사도 나타나지만 불완전어근인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다룬 'n형 어간'은 만주어의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이 접면되는 부분으로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왔다. 본고에서 논의한 'n형 어간'에 대한 분석 및 통계 역시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벗어나 있지 못하다. 만주어의 'n형 어간'에 대한 연구를 다른 연구에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면 앞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찾아서 주어진 자료를 더 꼼꼼하게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나오며

이상에서 김양진・이현희(2009)[54]에서 제안된 형태(소) 분석 기준에 의해 『御製增訂淸文鑑』(1779) 속 만주어 전체 표제어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동사 형태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단어 형식인 표제어 총 12,484개 중에서 동사 범주의 표제어는 총 5,560개이며 동사의 굴절어미 '-mbi', '-ha/-he/-ho/-ka/-ke/-ko'류 및 '-ra/-re/-ro'류 등을 제외하고 중복형을 삭제하여 얻은 4,043개의 만주어 고유어 동사 목록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합성 및 파생 등의 분석을 통해 만주어 동사 단일어간 목록 및 파생접미사 목록, 구성소 접미사 목록 및 불완전어근 목록 등과 이에 따른 단어 생산성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형태(소) 분석의 과정에서 만주어 동사 어간 중 형용사로 파생될 때 n형 말음을 갖게 되는 동사어간 재구형 211개도 확인하였다. 이들 n형 어간 가운데 109개는 파생어인데 대부분은 파생접미사 '-rA(n)-'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주로 만주어 동사의 단일어간을 추출하고 이 단일어간

54) 김양진・이현희, 앞의 글.

중 일부가 한국어 동사의 단일어간과 깊은 관련을 보이고 있음을 보였다. 추후 만주어 명사 및 부사, 형용사 등의 단일 형태소 목록이 확보되고 그에 대한 고유어 및 차용어 관계 등이 명확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고유어와 만주어 고유어의 계통적 비교나 언어 접촉을 통한 수렴의 과정을 짐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이훈,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Hauer, E.,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Otto Harrassowitz, 1952-1955.

_____,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 uflage, herausgegeben von Oliver Corff, Wiesbaden: Harrassowitz. 2007.

고영근,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 이근수 박사 환력기념논총』. 1992, 11-23면.

金東昭, 「淸語老乞大의 滿洲文語形態音素記述 (一) 」, 『語文學』 27, 어문학회, 1972, 42-57면.

_____, 「淸語老乞大의 滿洲文語形態音素記述 (二) 」, 『語文學』 30, 어문학회, 1974, 29-52면.

김양진, 「한국어와 만주어의 형태론적 동형성」,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97-125면.

_____, 「만주어 조어법 연구—『御製淸文鑑』의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9-30면.

_____,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 227-261면.

김양진・신상현, 「『同文類解』 語錄解 譯註」, 『인문학연구』 35,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17, 175-209면.

김양진・이현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55-117면.

당천항, 「만주어 'n형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알타이학보』 31, 한국알타이학회, 2021, 1-25면.

당천항・김양진, 「한국어 동사 '타-'와 만주어 동사 'fithe-' 간의 상관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35면.

杜佳烜・唐千航, 「滿語截搭構詞法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 2021, 30-35면.

박은용, 『滿洲語文語研究 1/2』, 螢雪出版社, 1969.

朴昌海・劉昌惇, 『韓漢淸文鑑索引』,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1960.

崔鶴根, 「滿洲語에 있어서의 未完結 過去語尾: -fi(-mpi, -pi)에 對해서」, 『어학연구』 11-2, 서울대 언어교육원, 1975, 111-117면.

Ki-Moon Lee, S. Robert Ramsey,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Gabelentz, H. C. von der, "Beiträge zur mandschuischen Conjugationslehr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8(1/2). Wiesbaden: F. A. Brockhaus, 1864, pp. 202-219.

【Abstract】

The Analysis of verbal Morpheme of Manchu language in 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

Tang, Qian-Hang* · Kim, Ryang-Jin**

In this paper, I conduct the morphological analysis on the 12,484 Manchu words in *Yuzhi Zengding Qingwenjian*, by the proposed morphological analysis criterion in Korean. And I would like to report the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verb morpheme. Among the 12,484 Manchu words, the verbs are 5,560 in total, among which we obtain 4043 stems, by excluding verbs' inflectional affixes such as '-mbi', '-ha/-he/-ho/-ka/-ke/-ke/-ko' and '-ra/-re/-ro'. Through the analysis of Manchu compounds and derived words, we have identified the verb list, the derivational affixes list, and the productivity of the correspondent affixes. Meanwhile, At the same time, I sorted out and confirmed that the verbs contained 221 n-type stem verbs. Of these n-type stems, 109 are derived words, most of which are derived by the derivation suffix '-rAn-'.

Keywords: *Yuzhi Zengding Qingwenjian*, Manchu language, the criteria of Analysis of verbal Morpheme of Manchu language, verbal Morpheme of Manchu language, n-type verb stem.

접수일: 2021.07.02.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9.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Hee Univ.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Hee Univ.